

분지형 지형·도심 아파트 숲 주원인

광주·전남 최악 황사 왜

15일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로 광주·전남이 미세먼지 몸살을 앓았다.

봄꽃이 만개한 휴일을 맞아 모처럼 야외 나들이에 나선던 지역민들도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긴급 미세먼지 경보 문자가 울리자,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귀가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호흡기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병원과 약국 등을 찾기도 했다.

이날 광주·전남을 덮친 미세먼지(PM10)는 지난 14일 중국대륙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남부지역인 광주·전남 등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관측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날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원인 중 하나로 분지형 지형과 도시를 둘러싼 아파트 숲 등을 지목하고, 관련 연구를 통한 조속한 대책 마련

광주 미세먼지 2015년 첫 관측 이래 두번째 높아

서울보다 4배... 시민들 호흡기 등 불편함 잇단 호소

을 주장했다.

15일 한국환경공단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송정동 455µg/m³ ▲주월동 431µg/m³ ▲서석동 422µg/m³ ▲건국동 420µg/m³ ▲오선동 418µg/m³ ▲농성동 414µg/m³ 등을 기록했다.

광주는 이날 낮 12시 황사로 인해 시간당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331µg/m³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1시간 뒤인 오후 1시에는 422µg/m³로 경보발령 기준을 초과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으며, 오후 2시에는 426µg/m³까지 치솟았다. 같은 시간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129µg/m³를 기록했다.

광주는 이날 오후 내내 미세먼지 농도가

300µg/m³ 이상 2시간 지속할 시 발령되는 경보 수준의 농도를 유지했다.

이날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첫 관측을 시작한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지난 2016년 5월 7일 오후 1시 기준 1일 평균 473µg/m³를 기록, 첫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는 것은 중국발 황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지형 지형과 도시를 둘러싼 아파트 등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주는 분지형 지형으로, 청정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기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바람길, 이른바 도시의

‘숨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무등산을 중심으로 고층아파트들이 도심을 둘러싸면서 기존 바람통로를 차단하는 시점과 미세먼지 수치의 상승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 이날 목포·영암·나주·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 서부권역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오후 1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 오후 1시 기준으로 1시간 평균 309µg/m³를 기록했다.

이대행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환경부 예고에 따라 16일 광주·전남에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기록 등을 참고해 볼 때 5일까지 황사는 2~3차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0 해질 19:06 달돋이 06:18 달질 19:16

호흡기 질환 주의하세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맑음	5/18	보성	맑음	4/17
목포	맑음	6/15	순천	맑음	6/18
여수	맑음	7/16	영광	맑음	4/15
나주	맑음	4/17	진도	맑음	4/15
완도	맑음	6/18	전주	맑음	3/18
구례	맑음	3/19	군산	맑음	5/14
강진	맑음	4/17	남원	맑음	2/18
해남	맑음	3/16	축산도	맑음	8/13
장성	맑음	3/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안바다	안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남부	남부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안바다	안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남해	남해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서부	서부	북서~북	1.0~2.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보통	미세먼지
보통	미세먼지
한대나쁨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6	02:19
	19:52	14:35
여수		
	03:05	09:25
	15:24	21:45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	☀	☀	☀	☀	☀	☀
7/20	7/21	8/23	9/25	11/25	14/21	13/21

전남도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전남도가 지난 7~8일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저온으로 생긴 농작물 피해(광주일보 12일자 6면)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피해 농가와 규모를 정확히 조사해 결함은 복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8일 장흥, 순천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2.1도, 영하 1.4도로 내려가는 등 7일부터 이틀간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다.

개화 중인 배, 복숭아 등 과수 작물과 텃밭의 감, 두릅나무 새순, 고사리 등 산란 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정

부에 복구 지원을 요청하고 피해 조사에 나섰다.

과수 작물은 저온 피해 조사 요령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다음 달 10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1ha 기준 농약대(과수류) 176만원, 대파대(엽채류) 410만원을 지원한다.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는 생계비 지원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 혜택을 준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안녕 기원 풍등 날리기

'제36회 고싸움 놀이 축제'가 지난 14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가정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풍등(風燈)을 날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5년새 1702명 자살... 30~50대 가장 많아

10~20대 여성·30대 가정불화·40대 경제문제

광주지역 자살자 중 30~5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청소년도 매년 평균 1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자살자 1702명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40명(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23

명(18.9%), 50대 315명(18.5%) 순이다. 70대 이상 노인층도 297명(17.5%)에 달했으며 20대 189명(11.1%), 60대 188명(11%), 10대 50명(2.9%)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성은 1197명(70.3%)으로, 여성(505명·29.7%)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자살사건(자살사도) 경험률은 여성(42.1%)이 남성(44.8%)보다 높았

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사고는 여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살사도 방법의 지명성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자살 수단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은 66%가 투신, 청·장년층(51.5%)과 노년층(40.1%)은 목매기가 많았다.

자살사망자의 직업군은 무직이나 가정주부, 학생처럼 경제적 활동이 없는 경우가 56.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판매

종사자(12.2%), 전문가 집단(9.5%), 사무 종사자(6.0%), 단순노무 종사자(5.6%)가 뒤를 이었다.

광주자살예방센터 상담전화 분석 결과 10대~20대는 이성문제, 30대는 가정불화, 40대는 경제적 문제, 50대 이상은 가정불화가 주요 고민이었다.

전화상담은 2013년 4541건, 2014년 7742건, 2015년 8888건, 2016년 8292건, 2017년 89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현장출동도 2013년 154건, 2014년 188건, 2015년 248건, 2016년 363건, 2017년 573건에 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문학상에 이종형 시인 '꽃보다 먼저...'

제주 출신 이종형(사진) 시인의 시집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살창)이 '2018 5·18문학상 본상'(상금 1000만원)에 선정됐다.

15일 5·18기념재단 심사위원회는 "제주 4·3을 담담하게 드러낸 시집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은 4·3정신에 입각해 있지만 문학적 형상화가 뛰어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심사위원은 "5·18과 4·3의 역사적 맥락이 닿아있음을 고려하고, 국가폭력의 아픔을 담백하게 승화한 역사성과 문학성을 모두 갖춘 작품이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5년부터 5·18기념재단과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이 공동 주최



하고 있는 5·18 문학상은 본상과 신인상으로 나눠 매년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본상 심사

위원회는 김준태(시인·심사위원장), 공선욱·정지아(이상 소설가), 맹문재(시인·안양대 교수), 이재복(평론가·한양대 교수)로 구성됐다. 5·18문학상 신인상(시·소설·동화) 수상작은 오는 23일 발표된다. 본상·신인상 시상식은 다음 달 19일 오후 5시 5·18기록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김용희기자 kimyh@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안정적노후연금
월 250만원
99KW 설치기준
자세한 분양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wpower.co.kr

www.kwpower.co.kr

제주도

임야/토지 매입 (전,답도가능)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99KW * 350기)

태양광발전소분양

- 제주 한림읍 1차 99KW (잔여분) 2기
- 강원 영월군 1차 500KW (잔여분) 3기
- 강원 영월군 1차 99KW (잔여분) 2기
- 충남 천안시 1차 99KW (잔여분) 1기
- 충북 제천시 3차 99KW (잔여분) 4기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일시 :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 국토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

◆◆예약접수 선착순 100명◆◆

태양광 설치 후 집중지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30년내에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발전 가능성

주변 7개 골프장 운영 및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입 개발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중간지점 위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 안전과의 거래로 인한 안전성 월수익 약 270만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제 2013-10-013032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www.kwpower.co.kr

KYUNGWONPOWER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64(만촌동 1331-8)

상시 방문 상담 가능

T)1644-4192 H)010-5110-5660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23번지 외 11필지

(총 148,260평)